

“1년 계획 세울 때 기부도 포함...어려울수록 서로 나눠야죠”

불황에도 나눔 실천하는 '키다리 아저씨' 광주 편의점 운영 박명석씨

“기부는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기부도 포함해 생활의 일부로 여겨야 합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서 편의점(GS25 상무우미점)을 운영하는 박명석(59)씨에게는 작은 비밀이 있다. 남 모르게 최근 5년간 어려운 아동들에게 책 1만여권을 기부한 '키다리 아저씨'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편의점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박씨는 오히려 기부활동을 확대할 의지를 내비쳤다.

기부물품으로 어린이도서관 고집하고 있는 박씨는 “(어린이 도서관 기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어린이들이 좋은 책을 읽고, 잘 자라서 통일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믿는다”고 활짝 웃었다.

지난 2014년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 박씨는 이듬해부터 GS리테일 책 기부 캠페인인 ‘북드림(Book dream)’에 꾸준히 참여하며 매년 수천권의 어린이 도서를 기부하고 있다. 박씨가 기부한 도서는 독서운동 민간단체 ‘맹스기브’를 통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어린이도서관으로 보내지고 있다.

박씨는 “편의점을 시작하고 나서 GS리테일측에서 물품 배송기사에서 책을 실어 보내주면 좋은 일에 쓰겠다고 했다”며 “마침 기부에 대해 생각하던 중 집에 있는 책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미 읽은 책 등을 받아 보냈다”고 회상했다.

2015년에 했던 첫 기부는 400권 정도였다. 육심

어린이들 지독한 가난 겪어 어린이 위한 책 기부 결심 5년동안 1만여권 쾌척

기부한 책으로 세워진 어린이 도서관 보면 ‘뿌듯’ “기부는 일상처럼 하는거죠”

이 생겨 이후부터는 사비를 들여 책을 구입하고 있다. 2016년 3000여권, 2017년 3600권을 쾌척했고 올해는 4100권을 전달했다.

박씨의 기부물품은 모두 어린이도서관이다. “어려운 가정형편의 어린이들은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며 책임감과 꿈을 키웠으면 합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자산이잖아요.”

박씨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데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 출신 박씨는 지독한 가난을 겪었다. 땅 한평 없이 소작농 신분으로 5형제를 키운 박씨의 아버지는 간혹 남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얻어온 쌀밥을 자식들에게 먹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생활 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최근 5년간 어린이들을 위해 책 1만여권을 기부한 GS25 상무우미점 경영자 박명석씨가 매장에서 미소짓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했던 터라, 책을 좋아했던 박씨는 읽을 책을 사달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어린 박씨에게 동화책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옷장사부터 PC방까지 이것저것 했어요. 벌써 자영업 경험만 30년 이상입니다. 2014년 광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

면서 평소 생각했던 기부를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불황이 겹치며 매출에도 타격을 입었고 생활형편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박씨는 여유가 있다고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했다. 매출이 많은 적든 기부는 일상처럼 해야 된다는 게 박씨의 기부 철학이다.

박씨는 값비싼 새책을 사는 대신 인터넷 등으로

저렴한 중고서점을 수소문해 중고 서적을 구입해 기부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한 끝에 올해 전달한 기부서적 4100권은 4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다.

박씨는 또 기부할 책을 고를 때 몇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다. 3-5세, 7-10세 등 대상 연령에 맞는 책을 골고루 구입하고, 책 세트를 구할 때는 전권을 다 갖춘 것만 전달한다. 어린이들이 시리즈 서적을 읽을 때 빠진 책이 있어 아쉬움을 느끼게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자신이 기부한 책으로 채워진 어린이 도서관 사진을 볼 때다. 지금까지 도서관 3곳에 박씨의 책이 전달됐다.

박씨는 “동네에 어린이도서관을 1곳을 만드려면 보유 서적이 최소 1000~1500권이 있어야 한다”며 “사람들이 집에 묵혀놓은 책을 기부하는 문화가 활성화되면 어린이도서관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편의점 경영이 수월하지는 않지만 박씨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항상 노력한 만큼 결과는 따라온다는 게 박씨의 좌우명이다. 박씨는 내진김에 올해 기부 목표를 1만 권으로 잡고, 밤낮없이 편의점 일에 매달리고 있다.

“제 성격상 어떤 일을 하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지금은 어린이 책 기부 1등을 하고 싶어요. 기부를 하려면 매출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하니 더 열심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수갑에 삼단봉까지” 코카콜라 노조원 과잉진압 반발

시위 7명 업무방해 혐의 등 체포 조사 북부경찰 “삼단봉 꺼냈지만 사용 안해”

코카콜라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노조원들은 경찰이 과잉진압하고 업체의 편만 들고 있다며 광주 북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0일 광주북부경찰과 화물연대 광주지부 2지회 코카콜라분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코카콜라분회 노조원 7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광주시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정문에서 농성하며 차량 출입을 막고,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소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콜라분회는 경찰이 노조원들을 연행하면서 삼단봉을 사용하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오후 북부서를 항의 방문한 뒤 북부서장과 면담했다. 이날 코카

콜라측에서 경찰에 집회 관련 협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우천 북부서장은 “코카콜라에서 집회 관련 협조 요청은 없었으나, 경찰 자체적으로 정보와 형사가 집회현장을 지켜보던 중 노조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사고도 우려됐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연행했다”며 “일부 경찰이 삼단봉을 꺼내긴 했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노조원들의 저항이 심한 상황에서 원칙에 따라 뒷수갑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중현 코카콜라분회장은 “조합원들이 모든 것을 바쳐 일했는데 글로벌 음료 브랜드인 코카콜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도 모자라 범죄자 취급까지 하고 있다”면서 “코카콜라가 노조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운송료를 책정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또 “힘없는 노동자의 아픔을 살피야 할 경찰도 어찌된 일인지 코카콜라를 배려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고 노동자를 7명이나 체포해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추석연휴 음주운전 크코 다친다...메르스로 중단됐던 단속 재개

메르스 발병으로 일시 중단됐던 음주단속이 재개된다. 특히 추석연휴에는 음주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메르스 발병에 따른 전염 우려 등으로 잠시 중단됐던 음주단속을 2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메르스 발병 후 112신고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나, 메르스 확진자가 완치판정을 받는 등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음주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추석 연휴기간에 음주운전 사고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상습구간과 시간대를 정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추석연휴였던 10월 1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서하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69%로 만취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명절 때면 차려나 성묘 후 음

복으로 술을 한두잔 마신 뒤 운전을 했다가 음주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단 한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택시 등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암서 100달러 위조지폐 발견

영암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영암군 한 은행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한 장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위폐를 가져온 은행 고객 김모(51)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며 1년여 전 외국인 고객에게 받은 100달러 지폐를 받고 보관해오다가 환전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조지폐에 대한 감식을 의뢰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중학 야구부 학생 투병에 친구·교직원 등 쾌유 기원 모금 운동 ‘훈훈’

○프로야구 투수를 지망하는 중학교 야구부 학생이 투병 생활을 이어가자 학교 친구와 교직원, 학부모들이 한 마음으로 치료비 모금 운동을 전개하며 쾌유를 기원.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흥중은 올 여름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 학교 2학년 1반 이재원군을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모금운동을 벌여 총 1805만9960원을 모아 이군 어

머니에게 전달했다는 것.

○-훈훈 중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군은 최근 큰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에 놓였는데, 학교 측은 “이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밝은 모습으로 야구를 해왔고 기량도 출중하다. 병마와 싸워 이겨서 장차 훌륭한 투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응원.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치매 국가책임제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박정선 할머니 (89세)

치매 어머님을 모시고 계신 임영만 님 (55세)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 치매안심센터 252개소 설치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연구 투자 확대
- 장기요양 수혜 폭 확대
장기요양 본인 부담 경감 확대
치매 안심형 시설 확충
- 치매 안심요양병원 확충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